黃寅性씨의 총리起用

인선은 모두의 관통령의 가장 중요 。人事가 萬事라 짐작케할 수 있는 와 능력이 배어있 인선은 대표적

당 정책위의장인 전북출신 지역구 에 선택된 黨內 구 국무총리는 黨 을 취했으나 이번 內낙착이다。이에 있다。그동안 紙 인사들과 비교하 나 실무형이라는 를 수 있다。 도지사와 농수산 행정능력을 갖추 국회의원으로 당 정치경험도 갖고 고 집행하며 정책 적인 조건은 구비 형총리가 아니 받는다。특히 黃씨 로 새정부의 정책 의 경험은 金차

기대통령의 국정의지를 현실에 잘 접목 시킬수있는 두가지의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의표를 찌르는 인사는 아니다。 그정도의 조건을 갖춘 총리후보감은 많 기때문이다。그래서 다른 평가가 강조 된다。그것은 지역안배다。人事를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金차기대통령 의 公言은 익히 잘 알고있다。

장관 인선에서도 그 公言이 지켜지기 를 바란다。지역주의는 반드시 타파되어 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의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현상등 지역주의의 실 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지역주의 를 영호남 대결의 二分法으로 보는 견 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돼있다。장기간 정 치권력을 장악한 특정지역의 세력이 정 치 경제 관료조직은 물론 사회의 구석 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것 이 지역주의의 원인이며 구조적인 현상 이다。

이는 총리와 장관등 국정지도부의 균 형있는 인선이 중요함은 물론 사회 전 체의 의식혁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지 역차별주의는 모든 조직의 구석구석에 까지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한국병을 치유하고 新韓國을 건설하겠다고 다짐 하는 새정부다。이같은 새정부에 주어 진 무거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호남인

사 국무총리라는 상징성만으로는 결코 해결될수 없는 과제다。

국무총리는 흔히 실권없는 존재로 알 려져왔다。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중심의 親政체제를 펼때 국무총리의 위상은 더 욱 약해진다。그러나 내각과 국무회의에 의한 국정운영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되고있다。경제 교육 과학기술 통상 외 교안보등의 심각한 현안때문이다。「일하 는 국무총리」는 만들기에 달려있다。출 발은 의표를 찌르는 인사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표를 찌르는「일하는 국 무총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지켜보겠다。

田炳旼수석의 사퇴를 보고

청와대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 田炳旼씨의 사퇴는 놀랍기도 하고 일말 의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人事가 萬事라하며 유독 새정부의 인사정책에 역점을 두어오던 金泳三차기대통령의 첫인사에 이같은 汚點이 생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통령의 손발이라 할 청와대수석비서관들중 학력 과 전력에 是非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을 起用했다는 것은 그 경위야 어찌됐든 인사권자의 실수로 기록될 만 하다。

더욱 문제의 田炳旼씨는 전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해방공간의 민족지도자를 암살한 반민 족행위자의 사위라는 점에 국민들의 의 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8·15해방이후 정부수립전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적 잖은 민족지도자를 잃었다。해방당년인 1945년12월 古下 宋鎭禹와 1947년7월 夢陽 呂運亨、그리고 같은해 12월 雪山 張德秀와 1949년6월 白凡 金九등의 피살이 그 대표적 예다。이들은 하나같이 새나라 건설의 棟樑들로서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몸 에 모았던 有爲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암살배경은 건국전후의 혼란 한 정국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채 오 늘에 이르고 있다。白凡살해범 安斗熙 가 지금까지 암살배경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채 생존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그러나 아직도 그 진 상을 알고싶어하고 테러범들에 대한 범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 인 公憤이며 정서다。그들 테러범들의 자손이나 인척이 대통령주변의 要職에 있다는 것은 법이전에 정치도의상 용납 키 어려운 일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文民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구성원들의 도덕적 청결성과 정치적 신념에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人事과정을 극비로 진행했기때 문에 이런 잘못이 생겼을 지는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성원들의 身上에 대한 검증이 선행됐어야 옳았다。田씨 자신도 임명권자가 자신의 경력을 모르고 重責에 임명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미리 밝히고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倫理이며 대통령에 대한 信義라 생각 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人事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자칫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과 力量을 가진 사람이라도 국민들의 시선을 받는 공직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도덕적 청결성과 생활면에서의 건전성을 구비해야 한다。이를 담보하는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장치가 필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결격사유를 밝힐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비서실 인사는 차기정권 인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국무총리 감사원장의 내정에 이어 곧 내각의 長次官등 수많은 人事가 뒤따를 것이다。30여년간의 軍事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文民政權을 창출하는 이번 인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그리고 이 인사는 능력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도덕적 기준이 함께 배려되는 인사라야 함을 말해두고 싶다。

黃寅性총리내정자가 22일

黃총리-李감사원장 임명 안팎

金泳三차기대통령이 22일 새정부 첫총리에 黃寅性 民自黨정책위의장、감사원장에 李會昌대법관을 내정하자 民自黨안팎에서는 「잘된 人事」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와 엇갈렸다。

○…金泳三차기대통령측근들은 『총리내정자는 지역구출신으로 民意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기용된것』이라며 『軍출신이라고 해서 꼭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反問。

그는 이어 『안기부장에 제되는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軍출신이 임명된다는 말도 아니다』고 밝히는등 「軍출신」부분에 크게 비중을 싣지않는 모습。

또 金차기대통령의 한측근도 『黃총리내정자가 湖南지역출신 두현역의원등 한명이라는 사실이 높게 평가됐다』며 『金차기대통령은 과거경력보다 앞으로 新한국건설의 책임을 맡는데 누가 적임이냐를 선택기준으로 삼았다』고 이를 발표토록 지시。

朴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아침7시경 上道洞에 도착、한시간가량 金차기대통령과 요담한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여러분 추측이 다 틀렸다』며 그동안 총리후보로 비교적 거명이 적게됐던 黃寅性정책위의장이 내정됐음을 시사。

金차기대통령과 朴비서실장내정자의 독대가 한시간동안이나 계속되자 일부에선 『발표일정은 잡아놓고 그러나 黨일각에서는 湖南총리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과연 黃총리내정자가 「湖南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대두되고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 추측 다틀려"

○…金泳三차기대통령은 22일 아침 朴寬用대통령비서실장내정자와 李敬在공보수석내정자를 上道洞자택으로 불러 새정부총리와 내각 인선을 최종 매듭에 『軍출신이라고 배제되는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軍출신이 임명된다는 말도 아니다』고 밝히는등 「軍출신」부분에 크게 비중을 싣지않는 모습。

또 金차기대통령의 한측근도 『黃총리내정자가 湖南지역출신 두현역의원등 한명이라는 사실이 높게 평가됐다』며 『金차기대통령은 과거경력보다 앞으로 新한국건설의 책임을 맡는데 누가 적임이냐를 선택기준으로 삼았다』고 이를 발표토록 지시。

朴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아침7시경 上道洞에 도착、한시간가량 金차기대통령과 요담한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여러분 추측이 다 틀렸다』며 그동안 총리후보로 비교적 거명이 적게됐던 黃寅性정책위의장이 내정됐음을 시사。

金차기대통령과 朴비서실장내정자의 독대가 한시간동안이나 계속되자 일부에선 『발표일정은 잡아놓고 이런 사태로 앞당겨

○…감사원장 人選과 관련、黨주변에서는 처음부터 李會昌대법관이 유력한 인사로 떠올랐고 金錫輝前법무장관도 대상인물로 거명됐으나 마지막순간 尹館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급부상。

靑瓦臺비서진내정자발표때부터 黨주변에서 『총리가 꼭 湖南출신이어야할 이유는 없다』는등 얘기가 떠돌면서 총리가 非湖南출신이 될 경우 湖南출신인 尹중앙선관위원장이 감사원장을 맡게되는 구도가 부상。

그러나 金차기대통령이 총리내정자를 마지막순간 黃民自黨정책위의장으로결정하면서 감사원장은 당초 원안이었던 서울출신 李대법관으로 낙착했다는 傳言。

田씨사태로 앞당겨

○…총리와 감사원장내정자발표가 예상보다 하루빠른 22일 단행된것은 靑瓦臺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던 田炳旼씨의 사퇴때문이었다는 後聞。

金차기대통령은 당초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뒤 총리人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田씨가 20일 사퇴하자 그 후유증 수습을 감안한듯 21일 측근들에게 총리내정자 발표가 22일 이루어질수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

측근들은 金차기대통령이 첫人選작품인 靑瓦臺수석비서관 내정자를 발표했으나 田씨에 대한 불투명한 경력시비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게되자 매우 곤혹스러워했다고 傳言。

EXPO'93
엑스포 '93 지정학습지